



신라 성골연구의 현황과 과제

The Studies on the Hallowed Bone(聖骨) of Silla : Research Trends and Remaining Issues

저자 (Authors)	박수진 Park, Soo-jin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52), 2021.8, 433-454 (22 pages) SILLASAHAKPO , (52), 2021.8, 433-454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4640
APA Style	박수진 (2021). 신라 성골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라사학보, (52), 433-4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7 15: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성골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수진*

I. 머리말	IV. 하대의 성골
II. 성골의 실재	V. 성골연구의 과제
III. 성골의 성립시기	VI.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의 신분제는 골품제이다. 그리고 성골은 그 최상의 신분으로 생각된다. 골품제가 일찍부터 연구가 되었던 만큼 성골도 오랜 기간 함께 연구되었지만 성골의 실재 여부, 성립시기, 범위, 존립기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골의 실재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성골과 진골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성골이 존재했다면 왕과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었겠지만, 왕의 후손 중에는 성골이 아니라 진골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골을 후대의 추존이라 보기도 하고, 성골과 진골이 표현만 같을 뿐 같은 신분이라고 보기도 한다. 반면 성골이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에서도 관념상의 것이라는 견해와 제도적으로 존재했다는 견해로 나뉘기도 한다.

이 연장에서 성골의 성립시기 역시 견해 차이가 있다. 모두 불교와 왕권강화, 제도 정비 등을 두고 성골의 성립시기를 구분한다. 이 중 하나는 율령이 반포되고 관등제가 정비되며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를 성골이 성립한 시기로 본다. 다른 하나는 석가의 가족의식이 극대화 되고, 제도정비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진평왕대를 성골이 성립한 시기로 보기도 한다.

성골은 진덕왕을 마지막으로 소멸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하대에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 성북문화원 부장

대표 논저 : 2020, 「신라 중고기 대왕·갈문왕체제의 성립과 성골의 출현」 『사림』 73 : 2019, 「신라 경문왕가와 성골의 재등장」 『역사와현실』 111.

사례가 「낭혜화상비」이다. 여기에는 '得難'에 대한 설명으로 '聖而(曰)眞骨'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하대 성골에 대한 논의가 달라진다. 성스러운 진골로 보기도 하고, 성골과 진골로 보기도 하며, 성골로 볼 경우에도 실제로 성골이 부활했다고 보는 견해와, 의식의 부활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성골 문제는 살펴본 바와 같은 제한된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성골이 신라 하대는 물론 고려까지 기억되는 신분이었다는 측면에서 성골의 성립과 소멸, 신라 하대 성골에 대한 기록까지를 살펴 보는 것은 신라사 정치사는 물론 신분제 연구에도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골, 진골, 제도, 낭혜화상비, 성립, 소멸

I. 머리말

신라의 신분제를 골품제라고 한다. 흔히 성골과 진골을 합쳐 骨制, 육두품에서 사두품까지를 頭品制라고 하는데 골품제는 이 둘을 합친 이름이다.¹⁾ 골품제 하에서는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관등에 따라 취임할 수 있는 관직의 상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복, 탈 것, 집의 크기와 사용하는 그릇까지 모두 골품에 의해 결정되었다.²⁾ 골품제를 제외한 한국 고대의 다른 신분제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골품제는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됐다.³⁾ 이를 통해 성골과 진골을 묶은 骨制와 그 이하의 頭品制에

1) 이에 대해서 골품과 두품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朱甫暎, 2005, 『新羅骨品制社會とその變化』 『朝鮮學報』 196). 그러나 여전히 골품제는 신라 신분제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며(朱甫暎, 2009, 「신라 骨品制 연구의 새로운 傾向과 課題」 『한국고대사연구』 54, 12쪽), 현재로서는 골품제를 대체하여 신라 신분제를 설명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골품제를 신라 신분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려 한다.

2) 『삼국사기』 권33, 잡지2, 色服, 車騎, 器用, 屋舍. 앞으로 인용할 『삼국사기』의 원문은 鄭求福 외, 1997,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것을 사용하였음.

3) 2000년 이후, 골품제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대표적 논문은 다음의 세 편이 주목된다. 金基興, 2000, 「골품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韓國古代史論叢』 9, 韓國古代史研究所 編,

대한 성격과 성립시기, 구조 등 다양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성골은 신라 골품제의 가장 상위의 신분이다.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사료가 부족하고, 있는 사료마저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존속 기간이다. 『삼국사기』는 혁거세부터 28대 진덕왕까지를 성골로 보고 있지만,⁴⁾ 『삼국유사』는 지증마립간까지를 上古로 보고,⁵⁾ 범흥왕부터 진덕왕까지를 中古로 보면서 이들을 성골이라고 하고 있다.⁶⁾ 끝나는 시점은 진덕왕으로 같지만, 존속 기간은 다른 것이다.

성골과 진골의 경계도 모호하다. 성골이 존재했다면 그 범위는 왕과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족일 것이다. 그런데 왕족 가운데서도 진골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다함이다. 그는 나물이사금의 7세손이었지만 진골로 기록되어 있다.⁷⁾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진지왕의 손자였지만 성골은 아니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진골이 된 원인을 혼인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하고,⁸⁾ 모계와의 관련성을 들기도 했지만,⁹⁾ 그것이 제도상의 운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그 연장에서 성골을 진골과 같다고 하여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관념적 신분이라고 보기도 했다.

존속기간도, 존재 여부도 논란이 있는 성골이지만, 신라사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틀림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성골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진덕왕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는 성골이 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 금석문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¹⁰⁾ 즉 성골은 신라인의 관념에서든, 제도적이든 분명히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朱甫暉，2009，「신라 骨品制 연구의 새로운 傾向과 課題」 『한국고대사연구』 54；이재환，2017，「신라의 ‘골품제’，그간의 논의와 약간의 전망」 『한국고대사연구』 87.

- 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8년 3월.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永校勘 謂之眞骨.”
- 5) 『삼국유사』 권1, 왕력, 中興 辛巳 1. “已上爲上古, 已下爲中古.”
- 6) 『삼국유사』 권1, 왕력, 大和 戊申 6. “已上中古聖骨 已上下古眞骨.” 앞으로 인용할 『삼국유사』의 원문은 강인구 외, 2002, 『譯註 三國遺事』, 以會文化社의 것을 사용하였음. ‘已上下古眞骨’에서 已上은 已下の 오기로 본다.
- 7) 『삼국사기』 권44, 열전4, 斯多舍. “斯多舍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
- 8) 대표적인 연구로는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가 있다.
- 9) 三品彰英, 1963,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199~200쪽.
- 10) 대표적인 사료가 『聖住寺朗慧和尚碑(이하 낭혜화상비)』에 등장하는 다음 구절이다. ‘常得

‘존재’하고 있으며,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고대 신분제에서 가장 사료가 많은 골품제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 상대적으로 사료가 적은 성골에 대한 연구가 그 성립 배경부터 소멸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 흐름을 성골의 실재, 성립시기, 하대의 성골 등을 중심으로 짚어 보려 한다.

II. 성골의 실재

성골은 그 실재부터 문제가 되었다. 성골이 성립과 범위에 대한 기록이 사료에 등장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성골과 진골 사이의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성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부터 살펴보자. 성골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今西龍이다. 그는 骨이 ‘겨레’라는 한국어를 옮겼다는 宮崎道三郎의 설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카바네(姓)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¹¹⁾ 그는 신라 上代를 女系 상속시대의 흔적이 남은 시대라고 하면서, 둘 이상의 家가 혼인 관계 등으로 합쳐지며 骨族이 탄생한다고 보았다.¹²⁾ 그러면서도 무열왕이 성골이 아닌 이유가 불명확하며, 실제로 성골은 존재하지 않았고, 무열왕대에 이전의 왕들을 존칭한 것이 성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¹³⁾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논문의 내용은 후대에 많이 극복되었지만, 성골의 실재여부와 모계와의 관련성 등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과제이다.¹⁴⁾

池內宏도 성골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는 골품을 혈족적 계급제로 보았으며, 성골과 진골은 王者의 혈족으로 보았다. 그러나 내물왕의 7세손인 斯多舍과,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가 진골임을 이유로 들며, 내물왕과 진지왕이 성골이면 사다함과 김춘추도 성골이어야 하는데 이들이 진골임을 이유로 성골과 진골은 같

佛眞海東金上人本枝根聖骨瑞蓮資報身’ 이하 인용할 금석문들의 원본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II, III의 것을 사용하였음.

11) 今西龍, 1921, 『新羅 骨品考』 『史林』 7 : 1933, 『新羅史研究』(재수록) :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이마니시 류수西龍의 신라사연구』, 서경문화사, 164~165쪽.

12)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같은 책, 178쪽.

13)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같은 책, 181~182쪽.

14) 김기홍, 2000, 앞의 논문, 204쪽.

은 것이며 성골은 후대에 추증된 것으로 보았다.¹⁵⁾

武田幸男은 骨 전환 사료를 제외하면 성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9세기이며, 성골과 진골은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김춘추가 대외적으로 對중국 외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두 여왕(선덕왕, 진덕왕)의 통치와 단절을 선언해야 했으며,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여왕 통치 시기의 성과를 이어 받아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성골과 진골이라고 하였다. 즉 진골은 새로운 앞선 통치 시기와 단절하기 위한 새로운 왕통 추구의 결과로, 성골은 이전 왕들의 추존으로 해석한 것이었다.¹⁶⁾

전미희는 「낭혜화상비」에서 낭혜화상의 신분이 본래 진골이었던 점과 『송암산성주사사적』에서 경순왕이 자신의 뿌리를 낭혜화상과 같이 ‘성골’로 본 점, 『삼국유사』 塔像, 靈鷲寺조에서 신문왕을 ‘신라 진골 제31대 왕’이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성골과 진골이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성골에서 진골로의 변화를 ‘골전환’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낭혜화상비」의 ‘聖而眞骨’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성골과 진골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성골에서 진골로 표현을 바꾼 것은 중고기의 진종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骨族의 명칭에 ‘眞’을 넣은 것으로 해석했다.¹⁷⁾

위 견해들은 모두 제한된 사료에 등장하는 성골 범위의 모호함을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성골과 진골을 같다고 보면서, 성골을 후대의 추존으로 본 것도 공통점이다.¹⁸⁾ 이 과정에서 골품제 관련 사료비판과, 骨의 편성원리, 골품제 형성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골품제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今西龍, 池內宏, 武田幸男 등이 모두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하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한계이며, 사료의 해석 문제 등은 학자들에 따라 이

15) 池內宏, 1941, 「新羅の骨品制と王統」 『東洋學報』 28 : 1960,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재수록, 570~571쪽.

16)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冊, 163~166쪽.

17) 田美姬, 1998, 「新羅의 聖骨과 眞骨—그 實體와 王統의 骨轉圓의 의미」 『韓國史研究』 102, 131~139쪽.

18) 단 전미희의 경우 성골과 진골을 같은 존재로 보았고, 법흥왕 대 골품제가 성립하면서 왕족이 최고신분인 성골이 되었다고 보았다. 중대 진골은 명칭만 바뀐 것이다. 따라서 전미희의 경우 성골을 부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추존된 존재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田美姬, 1998 앞의 논문, 136~139쪽).

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성골이 존재했지만 관념상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기동은 성골의 자격보다 성골의 성립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성골의 성립은 왕권의 성장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시점을 太子制와 葛文王制가 성립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골이 지증왕계 리니지 집단 내에서도 한층 좁은 왕족집단, 즉 銅輪太子 직계비속의 소 리니지(lineage) 집단이 다른 왕실친족집단과의 차별화를 위해 성골 의식을 합리화하며 만들어진 것이며, 그 시기는 善德王의 즉위 이전일 것으로 보았다.¹⁹⁾

성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도 있다. 먼저 성골이 혈연 혹은 혼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의견이다. 今西龍은 앞서 언급했듯 성골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김춘추가 진골이 된 것에는 모계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²⁰⁾ 「낭혜화상비」에 등장하는 聖而의 而를 ‘뎀’을 뜻하는 mi로 해석하여, 聖而가 聖身을 의미하며, 곧 성골이라고 보았다.²¹⁾ 今西龍은 성골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셈인데, 모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성골이 하나의 신분으로 제도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다. 末松保和는 중고기 왕실의 혼인을 분석하여 성골과 진골은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법칙에서 벗어났을 경우 성골에서 진골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²²⁾ 이병도 역시 성골과 진골은 모두 王骨이지만 진골은 부계와 모계 가운데 한 가지라도 非王種의 혈통이 섞인 것이 진골이라 보았다.²³⁾ 이 연구들은 혈연 집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모계 혹은 혼인 등을 통해 성골의 실재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김철준은 혈연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체제 안에서 성골의 형성을 해석했다. 그는 二部체제의 틀이 유지 발전되는 가운데 왕권의 강화, 불교 공인이 연결되며 성골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²⁴⁾

19)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재수록, 87~88쪽.

20)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앞의 책, 181쪽.

21) 今西龍, 1925, 「新羅 骨品 聖而考」 : 1933, 『新羅史研究』. 재수록 :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앞의 책, 205~207쪽.

22) 末松保和, 1954, 앞의 책, 167~181쪽.

23) 李丙燾, 1954, 「古代南堂考」 『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 :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632~633쪽.

다음으로는 성골이 왕자의식의 고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정중환은 정치적으로 내물왕대 이후 꾸준히 성립하던 왕권에 주목했으며, 그것이 범흥왕대 불교의 공인과 맞물려 성골이 성립했다고 보았으며, 부계 직계 및 제한된 근친만 성골에 속한다고 보았다.²⁵⁾

井上秀雄은 갈문왕에 대한 분석, 對중국 외교를 통한 王者의식의 고양 등을 통해 왕자의 존엄이 제도화 되었으며, 이것이 異종족 지배의 형식적인 슬로건이 되었는데, 역으로 그것이 기존 귀족에게 적용되어 문벌귀족보다 한 단계 높은 성골이 성립했다고 보았다.²⁶⁾ 김기홍 역시 왕자의식의 성립에 주목했다. 그는 배타적이고 신성한 성골이 성립할 조건을 장자계승과 동족내 혼인으로 보았으며 성골의 범위를 국왕과 그의 형제, 처와 자녀, 이들 사이의 사촌혼을 전형으로 재생산 되는 사람들로 보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왕과 갈문왕의 친족 중 정상혼을 통해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²⁷⁾ 선석열은 성골의 성립을 왕위계승체계의 확립과 왕자의식의 고양에서 찾았다. 그는 놀지마립간의 自立을 시작으로 시작된 왕위계승체계의 확립, 신궁제사 등을 통해 성립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보았으며, 성골이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지증왕계 내의 소가계집단이고, 왕과 갈문왕 등 초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²⁸⁾

이종욱은 왕족인 박·석·김씨와 기타 6부인 그리고 그 이하를 세력별로 구별 하였으며, 전자(왕족)가 骨, 6부 지배계급 이하가 세력에 맞춰 두품을 구성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골품제의 혈연적, 지연적 관계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성골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3대 가계집단이며, 지역적으로는 大宮·梁宮·沙梁宮에 살았다고 보았다.²⁹⁾ 木村誠은 신라의 官位와 官職을 분석하여 골품제의 형성 시기를 추적하였는데, 성골이 이찬에서 잡찬을 독점하였다고 보아서 성골을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신분으로 해석했다.³⁰⁾

24) 金哲俊,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 1990,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재수록, 151~156쪽.

25) 丁仲煥, 1969, 「新羅骨品考」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35~42쪽.

26)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株式會社, 309~311쪽. 본문에 나오는 문벌귀족은 井上秀雄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27) 金基興, 1999, 「新羅의 聖骨」 『歷史學報』 164, 44~55쪽.

28) 宣石悅, 1987, 「新羅 骨品制의 成立基盤과 그 構造」 『釜山史學』 11, 42~59쪽.

29) 李鍾旭, 1983, 「新羅中古時代의 骨品制」 『歷史學報』 99·100 : 1999, 『新羅骨品制研究』, 一潮閣, 재수록, 106~136쪽.

서의식은 『삼국사기』에서 혁거세부터 진덕왕까지를 성골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신라 상대의 왕위계승을 분석하여, 성골이 왕의 신성성을 강조한 현재적 신분이며, 왕과 왕위계승권을 갖는 사람 정도만이 성골에 속했다고 보았다.³¹⁾ 또한 갈문왕들을 분석하여 갈문왕은 왕위계승에서 벗어난 사람 중에게 주어졌으며, 본인과 그 直子에 한하여 왕위계승권이 인정되는 존재였고, 성골 성립 이후에는 성골의 자격을 유지하는 장치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³²⁾ 박수진 역시 갈문왕에 주목했다. 그는 중고 왕실의 혼인이 대왕 혹은 갈문왕의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중고기 왕위 계승권은 왕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으며, 왕제들을 갈문왕에 책봉하여 갈문왕이 왕위 계승과 성골유지의 제도적 장치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³³⁾

토착신앙과 불교에 주목한 견해도 있다. 이동운은 토착신앙과 불교가 왕권의 신성성을 뒷받침하는 종교가 시대에 따라 기능하면서, 각각 성골과 진골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골을(神)聖人の骨로 진골을真人(석가=眞種)의骨로 보고, 성골과 진골이 동일한 실체는 아니나 동급의 신분으로 보았다.³⁴⁾

이들 견해는 성골이 존재했다는 사료를 신뢰하면서 그 원칙을 찾으려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중 혈연과 관련된 연구들이 성골의 소멸에 맞춰 성골의 구성 원리를 찾으려고 하였다면, 왕자의식의 고양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골의 성립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었다는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성골은 ‘존재하지 않았다’와 ‘존재했다’는 설로 나뉘며, 존재했다는 설은 다시 성골이 관념상의 신분이었다는 의견과 어떤 원칙을 갖고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신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골은 이렇게 존재 자체부터 논란이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異論이 존재한다. 이는 장을 달리하여 알아보겠다.

30) 木村誠, 1976,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 『歴史學研究』 428, 185~187쪽.

31) 徐穀植, 1994, 「新羅 上代の 王位繼承과 聖骨」 『韓國史研究』 86, 78~90쪽.

32) 徐穀植, 2007, 「新羅 ‘上代’ 葛文王의 冊封과 聖骨」 『歷史教育』 104 31~32쪽.

33) 박수진, 2011, 「신라 中古期 骨制의 성립과 운영」 『사림』 39, 149~153쪽.

34) 이동운, 2019, 「신라 骨制의 변화와 ‘聖而眞骨」 『역사와 경계』 112, 150~175쪽.

Ⅲ. 성골의 성립시기

성골의 성립시기는 골품제의 성립시기, 특히 골제의 성립시기와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골과 진골의 성립시기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성골의 성립시기는 크게 법흥왕대 성립설과 진평왕 혹은 진덕왕대 성립설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법흥왕대 성립설을 보자. 법흥왕대 성립설은 마립간 시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던 왕권이 불교의 공인과 맞물려 성골이 탄생했다고 본다. 김철준은 왕명에서 ‘眞’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분석하여 성골의 범위를 해석하려 했다. 그는 법흥왕은 비록 眞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례로 보아 성골이 법흥왕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³⁵⁾ 정중환 역시 내물왕대 이후 왕권이 꾸준히 성장하였지만, 성골을 칭할 수 있었던 것은 稱帝建元이 가능하고,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대에 와서야 성골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武田幸男은 골품제의 기원을 마립간 시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법흥왕 7년(520)의 율령이 冠制와 「朱紫의 秩」을 규정한 것이며, 이것은 신분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골품제는 그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흥왕대의 골품제는 진골에 해당하는 계층과 그 이하의 두 계층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³⁷⁾ 그의 이러한 논의는 소위 ‘法興王制’라는 『삼국사기』 색복지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나온 것으로, 職官·衣服制 등을 바탕으로 신라 골품제의 형성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에 의미가 있다.

木村誠은 골품제 연구의 사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사료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관위와 관직 관련 사료도 함께 검토했다. 특히 그는 품주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색복지에 나오는 冠制와 衣制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했던 520년에는 성골, 진골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성골이 이찬과 잡찬을 독점했고, 진골은 파진찬 이하의 관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骨의 制’ 자체는 5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두품제는 이후 621년까지 축차적으로 성립했다고 하였다.³⁸⁾ 그

35) 金哲俊, 1952, 앞의 책, 151~156쪽.

36) 정중환, 1969, 앞의 논문, 41~42쪽.

37) 武田幸男, 1975, 앞의 논문, 174~180쪽.

38) 木村誠, 1976, 앞의 논문 28~31쪽.

의 연구는 의제와 冠制, 관부조직과 관직의 설치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주목되며, 井上秀雄, 武田幸男과는 달리 골품제의 성립을 7세기 무렵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신동하는 성골의 박·석·김씨 등 유이민 집단을 중심으로 골족이 형성되었으며, 내물왕 이후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하며, 왕권이 전제화 되었고 이 정치력의 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근친혼이 이루어지며 보다 좁은 단위의 최소친족집단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성골의 성립은 불교가 전제되어야 하고, 용춘의 출신이 진평왕 또는 선덕왕과 다르지 않음에도 그가 진골인 것을 보아서 성골의 성립은 진평왕대로 보았다.³⁹⁾

이중욱은 박·석·김의 세 왕족이 骨 신분을 형성했고, 6부는 그 거주구역과 세력 정도에 따라서 두품 신분을 형성하였으며, 법흥왕 7년의 율령 반포 때에 법제화되었다고 하였다.⁴⁰⁾ 그의 연구는 골품제를 신라의 건국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본 점, 골품제를 혈연만이 아닌 지연에도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김기홍은 왕실내 혼인, 부계상속 등 확립된 마립간 시기부터 성골의식이 싹트며, 이것이 국가를 질적으로 발전시킨 왕실의 업적과, 적합한 새로운 이념(불교)이 만나 법흥왕대 와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성골이 성립했다고 보았다.⁴¹⁾ 그의 연구는 성골을 중고기 제도상의 성골과,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내용상 존재했던 상고기와 중하대의 성골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법흥왕대 성립된 성골은 제도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수진은 「봉평비」와 「천전리서석-을묘명」을 분석하여 성골의 성립시기를 분석했다. 그는 성골의 성립은 율령 반포 등으로 대표되는 왕권강화의 과정이 보이는 법흥왕 대에 성골이 성립한 것으로 보면서도, 「봉평비」의 의사처리 방식을 보았을 때 율령 반포 이후에는 성립이 성립되지 못했으며, 불교 공인 과정의 갈등을 겪은 이후 성립하였다고 보았다.⁴²⁾

이동윤은 성골과 진골의 성립을 분리해서 보았다. 그는 마립간 시기 성골 성립의 모태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법흥왕대 병부령 설치, 율령 반포 등의 정치적

39)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科程」, 『韓國史論』 5, 6~42쪽.

40)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73~192쪽.

41) 金基興, 1999, 앞의 논문, 48~52쪽.

42) 박수진, 2011, 앞의 논문, 137~141쪽.

행보에 힘입어 성골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진골은 왕의 단독 교시가 가능해진 진흥왕대 이후 골족 중에 불교 신봉자이자, 眞種의 신하라는 측면이 강조되며 성립된 신분으로 보았다.⁴³⁾

성골의 성립을 진평왕~진덕왕 사이로 보기도 한다. 井上秀雄은 완성된 형태로서의 골품제는 9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6세기 전반 對중국 외교의 필요성에 의해 王者의식이 생기고 제도화되다가 비담의 난을 계기로 성골이 제도화되며 骨制가 완성되었고, 두품제는 김현창의 난을 계기로 지연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이 兩者가 9세기 전반에 귀족연합체의 부활로 골제를 우위에 두고 두품제를 하위로 결합하며 골품제가 완성되었다. 그는 뼈과 관련된 사료가 632년에서 655년 사이에 몰려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신라 중고기 각종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왕 및 왕족에 대한 인식이 싹트었으며 그것이 갈문왕 등을 통해 제도화 된 것이 성골이라고 하였다.⁴⁴⁾

문경현은 중고기 왕들이 모두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지만 왕 스스로가 석가의 가족으로 만든 진평왕대에 성골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직계인 법흥왕까지를 성골로 추존했다고 보았다.⁴⁵⁾ 이기동은 진평왕대 동륜태자제가 나머지 지증왕계 친족집단과의 구분을 위해 본인들을 다른 귀족보다도 1단 높은 혈통으로 만든 것을 성골이라고 보았다.⁴⁶⁾ 전덕재는 율령반포 당시의 신분제는 干支群/奈麻群/帝智群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골에서 1두품에 이르는 정연한 신분제는 아니었다고 하였다. 또한 ‘法興王制’의 冠制가 사실은 진덕왕대의 것이며, 진덕왕대부터 진골과 그 이하 신분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하였다.⁴⁷⁾

서의식은 마립간 시기의 지배층은 部體制를 기저로 하는 ‘干’이라 불리는 신분층이었으며, 중고기 초기에 부체제가 와해되면서 내물왕계가 간층에서 상향분화 되면서 진골이 형성되었고, 진덕왕대에 와서는 하나의 신분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그는 ‘干’층으로 지배자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 가운데 다시 진골이 상향적으로 형성하였다고 하여, 신라 관등제에서 간군 사이의 신분적 격차를 설

43) 이동윤, 2019, 앞의 논문, 165~170쪽.

44) 井上秀雄, 1965, 앞의 논문, 44~50쪽.

45) 文暉鉉, 1976, 『新羅王族의 骨制』 『大丘史學』 11, 6~13쪽.

46) 이기동, 1984, 앞의 책, 87쪽.

47) 전덕재,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97~317쪽.

명하였다.⁴⁸⁾

끝으로 성골의 성립을 진흥왕대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흥왕대에는 율령 반포, 불교의 공인, 신성 관념의 도입 등으로 성골 성립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국왕의 위상, 육부체제의 잔존, 갈문왕의 존재 등으로 인해 성골이 성립할 수 없었으며, 이것이 극복한 시기인 진흥왕대에 성골이 성립할 수 있었다.⁴⁹⁾

이상을 살펴보면 법흥왕대설과 진평왕~진덕왕대 성립설 모두 왕권의 성장, 왕위 계승권, 불교와의 연관성, 관제 등의 성립시기 등을 근거로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기의 성골, 나아가 골품제 연구의 난해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V. 하대의 성골

성골은 신라 하대에도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사료는 「낭해화상비」일 것이다. 특히 ‘聖而’, ‘得難’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 되었다. 聖而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해진 것이 확실한 曰이 당대의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하여 聖而를 성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 논쟁이 되었다. 得難의 경우에는 그것을 6두품으로 보는 견해와 새로 생겨난 신분층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었다. 이것은 ‘國有五品’의 구절과 맞물려 5품에 속하는 다섯 신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되었으며 성골과 득난이 독자적으로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진골과 육두품의 별칭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었다.

今西龍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聖而의 而를 ‘몸’을 뜻하는 mi로 해석하였으며, 聖而가 聖身을 의미하며, 곧 성골이라고 보았다.⁵⁰⁾ 그는 得難을 육두품의 별칭으로 보아 ‘국유오품’의 다섯 신분을 聖而, 眞骨, 득난(육두품), 5두품, 4두품으로 해석했다. 또한 성골은 진덕왕의 서거와 함께 사라졌으므로, 당시의 聖而가王者 1인을 지칭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러한 해석은 후대 연구자들

48) 徐穀植, 1994, 『新羅 上代 ‘干’層의 形成·分化和 重位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96~119쪽.

49) 성준선, 2021, 「신라 진흥왕 대 성골의 출현과 그 배경」 『대구사학』 143, 9~27쪽.

50)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앞의 책, 205~207쪽.

에게 많이 받아들여졌다.

득난을 육두품의 별칭이 아니라 독자적인 신분으로 본 견해도 있다. 처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서의식이었다. 그는 聖而와 眞骨 사이의 曰의 추기시점을 분석하여 만들 당시부터 각자 시점까지의 추기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曰은 후대인이 임의로 적은 것으로 ‘聖而眞骨’이 당대의 표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聖而眞骨을 왕실에 속한 귀족으로, 得難을 나머지 진골귀족으로 보았다.⁵¹⁾ 이러한 그의 연구는 得難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연 것으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득난을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창겸은 원성왕, 문성왕, 소성왕, 진성왕 등 왕명에서 보이는 聖王, 聖上과 皇后, 太后 등의 호칭 등에 주목하여 원성왕계 왕실이 황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聖而를 이 연장에서 해석하였는데, 성이는 이미 사라진 성골이 아니라 국왕을 비롯한 왕실이 진골에서 분화되어 격상된 존재라고 보았다.⁵²⁾ 이 중육 역시 聖而를 성골이 아니라 당시 왕실이 다른 진골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한 것으로 파악했다.⁵³⁾

남동신은 「낭해화상비」의 주해본, 관독본, 역주본 등을 분석하여 聖而가 독립된 명사로 사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聖而와 眞骨 사이의 曰은 후대 임의적 추각이라고 보고 서의식과 같이 ‘聖而眞骨’이 당대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다만 그는 경문왕가에서 骨法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여 9세기 진골 귀족의 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경문왕가가 성골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聖而가 나타는 것으로 보았다.⁵⁴⁾

하일식은 글자체, 避諱, 각자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聖而와 眞骨 사이의 曰이 후대의 임의로 적은 것이며 당대의 5품은 聖而眞骨, 得難,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성이진골의 성이는 국왕과 그 가족으로 보았으며, 득난은 진골에서 조강했지만 진골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던, 제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으로 해석했다.⁵⁵⁾

51) 徐穀植, 1995, 「9세기 말 新羅의 ‘得難’과 그 成立科程」 『韓國古代史研究』 8, 250~266쪽.

52) 金昌謙, 1999, 「新羅 元聖王系の 皇帝·皇族의 地位와 骨品 超越化」 『白山學報』 52, 862~870쪽.

53) 李鍾旭, 1999, 앞의 책, 247쪽.

54) 南東信, 2002, 「聖住寺 無染碑 ‘得難條’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28, 178~202쪽.

55) 하일식, 2016, 「신라의 得難 신분과 阿滄 重位制」 『韓國古代史研究』 82, 274~290쪽.

전미희는 성골과 진골이 같은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의 연장에서 聖而眞骨=성골=진골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曰은 후대의 임의적인 추각으로 보았다.⁵⁶⁾ 전덕재는 曰을 후대에 최지원의 비문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추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聖而眞骨을 ‘성스럽고 참된 골’로 이해했다.⁵⁷⁾ 이동운 역시 曰을 인정하지 않고 聖而眞骨을 무열왕계가 스스로를 성골과 동일시하면서 다른 진골과 구분되고자 했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⁵⁸⁾

이에 대해 聖而와 眞骨 사이 曰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曰을 추각으로 보기는 하지만 건립과정에서 일어난 탈루와 오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본다. 윤선태는 曰이 건비 당시의 실수로 빠졌으며, 후에 보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聖而=성골로 본 것이다.⁵⁹⁾ 김기홍 역시 曰이 ‘와’와 같은 단순한 연결사이며, 따라서 ‘성이진골’은 성골과 진골이라고 해석했다.⁶⁰⁾ 김창호는 曰이 추각 된 것이기는 하나, 「천전리서석 을묘명」과 「창녕비」에도 추각의 사례가 있으며 曰자의 위치도 들어가야 할 자리라고 보고, 문맥과 관련 없는 글자는 아니라고 보았다.⁶¹⁾ 이재환은 거대한 비에서 유독 聖而와 眞骨의 차이에 집착하여 유독 이 부분에 曰자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전근대인들이 細註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원비를 훼손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은 글자를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비문의 독자를 唐人으로 보아 입비 시점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撰·書者의 의도에 의해 補刻되었을 것을 보았으며, 聖而를 성골로 해석했다.⁶²⁾ 김창석은 得難의 설명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4·5 품은 각각 國有五品에 속하며, 聖而, 진골, 득난=6두품, 5두품, 4두품을 5품으로 보았다. 이 연장에서 曰은 후대의 추각이나, 추각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⁶³⁾ 박수진 역시 이재환, 김창겸과 같은 입장에서 曰이 의도를 갖고

56) 田美姬, 2005, 「신라 하대 골품제의 운영과 변화—흥덕왕대의 규정과 朗慧和尚碑 得難條의 검토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26, 93쪽.

57) 전덕재, 2013, 「新羅 下代 得難 신분의 擡頭와 骨品制의 變化」 『신라문화』 42, 323쪽.

58) 이동운, 2019, 앞의 논문, 174~175쪽.

59) 윤선태, 1993, 「新羅 骨品制의 構造와 基盤」 『韓國史論』 30, 14~18쪽.

60) 김기홍, 1999, 앞의 논문, 36~37쪽.

61) 김창호, 2003, 「新羅 無染和尚碑의 得難조 해석과 건비 연대」 『新羅文化』 22, 235~236쪽.

62) 이재환, 2015, 「〈성주사 낭혜화상탑비〉의 ‘得難’과 五品」 『목간과 문자』 15.

63) 金昌錫, 2019, 「신라 중·하대 골품제의 변화상과 그 배경」 『韓國史研究』 184, 116~119쪽.

머지않은 시점에 補刻된 것으로 보아 聖而와 성골을 같은 존재로 파악했다.⁶⁴⁾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초기에는 聖而를 성골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聖而眞骨을 하나로 보아 성골은 아니지만 왕족 등 진골과는 다른 하나의 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그러나 여전이 聖而와 眞骨을 분리해서 聖而를 독자적인 신분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 최근 하대의 연구는 聖而보다 得難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聖而의 경우 曰을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聖而를 진골에서 분화하는 별개의 신분으로 보거나, 聖而를 뒤의 진골을 수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V. 성골연구의 과제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골은 존재했었는지, 아니면 훗날 추존된 가상의 존재였는지, 아니면 특정 시기에 관념적으로 존재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또 성골이 관념적, 혹은 제도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시기는 법흥왕대인 6세기와 진평왕대인 7세기로 설이 나뉜다. 성골의 실재는 하대에도 문제가 된다. 진덕왕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성골이 하대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성골=진골이기 때문인지, 성골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왕을 둘러싼 일부가 분리되어 성골로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성골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골이 신라사에서 강하게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五品の 하나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다. 100년 가까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셈이다. 더욱이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골은 물론 골품제에 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다만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해 왔듯 성골은 성립과 소멸 모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골이 제도상의 신분이든지, 관념상의 신분이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

64) 박수진, 2019, 「신라 경문왕가(景文王家)와 성골의 재등장」 『역사와 현실』 111.

던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성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계기와 그것이 가리키는 범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골이 제도적 혹은 관념적으로 존재했다는 견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王者의식이다. 성골은 특정 시기에 왕 혹은 왕을 둘러싼 사람들을 가리켰을 것이기 때문에, 성립시점에 대한 연구는 신라 왕권 성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골이 왕위 계승과 관계되었다는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골로 불리는 집단이 있었다면 그 집단은 왕위 계승과 전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王號의 성립과정, 갈문왕제의 변화 등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성골에 관한 연구는 신분제적 관점을 넘어 정치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멸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골이 정말 ‘소멸’한 것이라면 그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진골과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대의 ‘성골’이다. 성골은 진덕왕을 마지막으로 소멸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모두 진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골은 신라 하대는 물론 고려 초까지 기억되던 신분이었다. 무열왕의 즉위(654)로 시작된 중대는 해공왕의 흥거(780)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126년 동안 성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100년 넘게 사라졌던 성골이 하대까지 강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 성골은 영호징이 『신라국기』에서 다른 一骨과 二骨 문제 등을 증고기 및 하대와 연관하여 연구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골은 진골보다 우위에 있는 신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대왕실이 과연 이전 왕실은 성골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진골귀족들과 같이 ‘진골’로 위치시켰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골과 진골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중대 초기 이전의 모든 왕들을 성골로 추증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두 견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대왕실이 본인들을 다른 귀족들과 같은 신분으로 여겼는지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하대에 다시 ‘성골’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 왕실의 ‘자의식’은 물론 중대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려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무왕 이후에 나오는 중대 왕실의 계보의식, 문무왕과 신문왕대에 등장하는 ‘만파식적’ 설화 등은 이와 관련하여 모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신라사 전체에서 성골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성골 연구는 100년에 걸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립에서 소멸까지 나름의 해석이 시

도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를 신라사 전체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골이 신라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기억’의 파편들을 사료를 통해서 재구성함으로써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낭혜화상비」의 ‘聖而眞骨’와 ‘本枝根聖骨’, 『고려사』에도 ‘聖骨將軍’ 虎景⁶⁵⁾ 등은 당시 사람들이 성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골품관련 기록들도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성골은 신라 최상위 신분으로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실재 여부, 성립시기, 하대 성골의 존재 여부에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새로운 문자자료가 발굴되어야 하지만, 그것만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존 사료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점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골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신라사에서 성골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성골이 최상위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성골연구는 자연히 신라 정치사 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하대까지 기억되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라인의 인식 체계를 엿볼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하다.

또한 지금까지 성골연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면서 신라사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聖而에 대한 문제가 得難과 함께 신라 하대 신분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이 대표적이다. 골품제 연구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혼인은 물론 관등, 관직제도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신라 성골 연구는 성립과 소멸 그리고 기억이라는 관

65) 『고려사』 권1, 고려세계, “金寬毅編年通錄云 有名虎景者 自號聖骨將軍 …”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립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왕권의 변화는 물론, 갈문왕제와 대등제의 변화 등을 성골의 성립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소멸과 기억의 관점에서는 중대의 성골, 하대 성골(의식)의 재등장, 고려시대에 기억되는 성골 등을 종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聖住寺朗慧和尚碑」

2. 단행본 및 저서

徐毅植, 1994, 『新羅 上代 ‘干’層의 形成·分化和 重位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李鍾旭, 1999, 『新羅骨品制研究』, 一潮閣.

末松保和, 1954,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株式會社.

이마니시 류 지음, 이부오, 하시모토 시게루 옮김, 2008, 『이마니시 류 西龍의 신라 사연구』, 서경문화사.

3. 논문

김창호, 2003, 「新羅 無染和尚碑의 得難조 해석과 건비 연대」 『新羅文化』 22.

金基興, 1999, 「新羅의 聖骨」 『歷史學報』 164.

金基興, 2000, 「골품제 연구의 현황과 전망」 『韓國古代史論叢』 9, 韓國古代史研究所 編.

金昌謙, 1999, 「新羅 元聖王系의 皇帝·皇族의 地位와 骨品 超越化」 『白山學報』 52.

金哲俊, 1952,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歷史學報』 1·2.

南東信, 2002, 「聖住寺 無染碑 ‘得難條’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28.

文暲鉉, 1976, 「新羅王族의 骨制」 『大丘史學』 11.

박수진, 2011, 「신라 中古期 骨制의 성립과 운영」 『사림』 39.

박수진, 2019, 「신라 경문왕가(景文王家)와 성골의 재등장」 『역사와 현실』 111.

徐毅植, 1994, 「新羅 上代の 王位繼承과 聖骨」 『韓國史研究』 86.

徐毅植, 1995, 「9세기 말 新羅의 ‘得難’과 그 成立科程」 『韓國古代史研究』 8.

徐毅植, 2007, 「新羅 ‘上代’ 葛文王의 冊封과 聖骨」 『歷史教育』 10.

- 宣石悅, 1987, 「新羅 骨品制의 成立基盤과 그 構造」 『釜山史學』 11.
- 성준선, 2021, 「신라 진흥왕 대 성골의 출현과 그 배경」 『대구사학』 143.
- 申東河, 1979, 「新羅 骨品制의 形成科程」 『韓國史論』 5.
- 윤선대, 1993, 「新羅 骨品制의 構造와 基盤」 『韓國史論』 30.
- 李基東, 1972,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
- 이동윤, 2019, 「신라 骨制의 변화와 ‘聖而眞骨」 『역사와 경계』 112.
- 李丙燾, 1954, 「古代南堂考」 『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
- 이재환, 2015, 「〈성주사 낭혜화상탑비〉의 ‘得難과 五品」 『목간과 문자』 15.
- 이재환, 2017, 「신라의 ‘골품제’, 그간의 논의와 약간의 전망」 『한국고대사연구』 87.
- 李鍾旭, 1983, 「新羅中古時代의 骨品制」 『歷史學報』 99·100.
- 전덕재, 2000, 「7세기 중반 관직에 대한 관등규정의 정비와 골품제의 확립」 『한국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 전덕재, 2013, 「新羅 下代 得難 신분의 擡頭와 骨品制의 變化」 『신라문화』 42.
- 田美姬, 1998, 「新羅의 聖骨과 眞骨—그 實體와 王統의 骨轉圓의 의미」 『韓國史研究』 102.
- 田美姬, 2005, 「신라 하대 골품제의 운영과 변화—흥덕왕대의 규정과 朗慧和尚碑 得難條의 검토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26.
- 丁仲煥, 1969, 「新羅骨品考」 『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 朱甫墩, 2005, 「新羅骨品制社會とその變化」 『朝鮮學報』 196.
- 朱甫墩, 2009, 「신라 骨品制 연구의 새로운 傾向과 課題」 『한국고대사연구』 54.
- 하일식, 2016, 「신라의 得難 신분과 阿滄 重位制」 『韓國古代史研究』 82.
- 今西龍, 1921, 「新羅 骨品考」 『史林』 7.
- 今西龍, 1925, 「新羅 骨品聖而考」.
- 池内宏, 1941, 「新羅의 骨品制と王統」 『東洋學報』 28.
- 三品彰英, 1963,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의 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冊.
- 木村誠, 1976,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의 成立」 『歷史學研究』 428.

ABSTRACT

The Studies on the Hallowed Bone(聖骨) of Silla : Research Trends and Remaining Issues

Park, Soo-jin

The bone rank system was the status system used in Silla. On the basis of the hereditary proximity, the people in Silla were classified in this status system. Historical records demonstrate that the hollowed bone was the highest rank. Along with the bone rank system, the hollowed bone has been studied in detail ; but there have been no consensus on several issues of the hollowed bone, such as the time of establishment, and its actual existence, scope, and duration.

Such issues has been raised by the fact that it is not easy to divide clearly between the hollowed bone and the true bone. If the hollowed bone was actually existed, royal families were included in this rank. However, som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who were even the descendant of king were referred to the true bone in historical sources. Therefore,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hollowed bone was the the honored title granted after his/her death and suggest that both hollowed and true bones were the same status in actuality. Even the scholars who advocate the existence of the hollowed bone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argues that this status was the social custom, but the other group insists that it was the institutional status.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is rank is also one of the debated issues. Based on the phase of the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the strengthening of the royal authority, and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one group indicates that this rank was established in the reign of King Bupheung who conducted the promulgation of the raw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rank system, and the recognition of Buddhism. The other group suggests that it was established in the reign of King Jinpyeong who attempted to the ideological manipul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by identifying his family with the family of Buddha, and reformed the government institution system.

Queen Jindeok was the last person who had the title of the hollowed bone, but it is found in historical sources recorded in the Later Silla, such as the Stele of Monk Nanghye. The inscription of this stele mentioned that 'deuknan (得難) is seongiwaljingol(聖而(曰)眞骨).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sentence, scholars have suggested the different views about the hollowed bone recognized in this period. I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views : 1) the sacred true bone, 2) the division between the true and the hollowed bone, 3) the reemergence of the hollowed bone.

It is not easy to make a consensus on the issue of the hollowed bone, because of the scarcity of the historical records. Nevertheless, in order to shed new light on the political history and the status system of Sill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sources recorded in Later Silla, because this status was mentioned even in the Goryeo Period.

Key Words : hollowed bone, true bone, rank system, establishment, Stele of Monk Nanghye, extinction

논문 투고일 : 2021. 6. 30. 심사완료일 : 2021. 7. 28. 게재확정일 : 2021. 8. 6.